

진보인사 안정권 배치... 계파별 안배

■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민주통합당이 20일 진보 끝에 40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 최고위원회에서 비례대표공심위의 명단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벌어졌고 밤 8시가 다 돼서야 명단을 발표했다.

◇후보 선정 갈등=이날 안병욱 공천심사위원장 등 비례대표 공심위가 넘긴 원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최고위원들의 제 사람 집어넣기 실랑이로 인해 발표가 지연됐다. 당선 안정권으로 예상되는 20위까지 들어갈 후보를 놓고 최고위원들이 제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는 바람에

아침부터 열린 회의가 오후에 들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오후 2시 당무회의도 순연되며 7시가 다 돼서야 열렸다.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 갈등은 '한 지붕 네 가족'의 통합 정당으로 출발하면서 예고된 측면이 강하다. 친노그룹, 구 민주계 등 기존 인사들 외에 1월 통합전당대회에서 합류한 시민사회와 한국노총 뒤편까지 배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 출신 우대=1, 2번을 차지한 전순옥(사)참여성노동복지터 대표와 최동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를 포함, 홍종화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4번), 남윤인 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9번), 김기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14번),

최민희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19번) 등 6명이 당선 안정권에 포함됐다.

◇노조 출신 대거 발탁=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탈락했지만 은수미(49)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3번의 상위 순위에 배치됐고 부산일보 해직기자 출신인 배재정 전 부산여가자회 회장(7번), 한정에 한국산업안전공단 노조위원장(11번), 김기준 금융노조 위원장(12번) 등이 당선 안정권에 공천됐다.

◇기타=재벌 개혁을 위해 홍종화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4번)이 발탁됐으며 당직자 출신으로는 김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17번),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국장(18번), 신문식 민주당 사무부총장(22번) 등이 포함됐다.



백군기 김광진

또 군 장성 출신으로 31사단장을 지낸 백군기 전 특전사령관이 공천을 받았으며 청년비례대표로 선정된 김광진 전 순천YMCA 재정이사가 10번, 장하나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이 13번으로 당선안정권에 배치됐다. 또 다른 청년비례대표 후보인 정은혜·안상현씨는 27, 28번에 이름을 올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야 4·11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순위	후보자(연령)	주요경력
1	전순옥(여·58)	(사)참여성노동복지터 대표
2	최동익(6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3	은수미(여·49)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4	홍종화(53)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5	진선미(여·44)	이안법률사무소 공대대표변호사
6	김용익(59)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7	배재정(여·45)	부산일보 해직기자
8	백군기(62)	특전사령부 사령관
9	남인순(여·53)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10	김광진(30)	순천YMCA 재정이사
11	한정에(여·47)	한국산업안전공단 노조위원장
12	김기준(54)	금융노조 위원장
13	장하나(여·34)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
14	김기식(47)	참여연대 사무처장
15	한영숙(여·69)	민주통합당 초대 당대표
16	도종환(59)	시인
17	김현(여·46)	청와대 춘추관장
18	진성준(44)	국회정책연구위원
19	최민희(여·51)	국민의명령 대외협력위원장
20	홍익(67)	경북참여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
21	임수경(여·43)	방송위원회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
22	신문식(45)	민주당 조직부총장
23	문명순(여·49)	(사)참여성노동복지터 수다공방 이사
24	김헌태(45)	한국사회이론연구소(KSOI) 소장
25	조경애(여·49)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26	김좌관(52)	(사)대한하천학회 부회장
27	정은혜(여·28)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재학
28	안상현(29)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연구원
29	김경재(여·50)	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30	이재화(4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순위	후보자(연령)	주요경력
1	민병주(여·53)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
2	김정록(61)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3	윤영희(여·55)	(사)한국농수산식품CEO연합회 부회장
4	조영철(53)	통일부 통일교육원 원장
5	강은희(여·47)	(사)IT여성기업인협회장
6	주영순(65)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7	신의진(여·49)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8	이상일(50)	중앙일보 논설위원
9	이예리사(여·57)	전 태릉선수촌장
10	이만우(62)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1	박근혜(여·60)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12	안종범(52)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3	김현숙(여·45)	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4	김정실(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15	이봉희(여·58)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
16	최봉홍(69)	전국항문노동조합연맹 위원장
17	이지스민(여·35)	물방울나눔회 사무총장
18	송영근(65)	대항군인회 정책지원위원
19	류지영(여·62)	(사)한국유아교육인협회 회장
20	박정식(52)	(사)한국드라마제작자협회 회장
21	민현주(여·42)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2	김상민(38)	대학생지원봉사단 V원장대 대표
23	손인춘(여·53)	(사)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사
24	이재영(36)	World Economic Forum 아시아 부국장
25	현영희(여·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26	이운용(50)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실 보좌역
27	신경림(여·57)	전 대한간호협회 회장
28	양정영(68)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
29	박운옥(여·62)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장
30	이동주(47)	새누리당 기획조정국장

이공계·여성 우대... 광주·전남 1명 뿐

■ 새누리당 비례대표

새누리당이 20일 비례대표 1번에 여성 과학자를 배정하는 등 모두 46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심사의 특징은 당이 정책기조 전환과 함께 약속한 이공계열 출신 우대와 탈북자·이주여성·여성 등

소수자를 이례적으로 배려했다는 점이다.

우선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민병주 연구위원을 비례대표 1번에 앉혔다. 여당이 상징성 강한 비례대표 1번에 여성 과학기술인을 앉힌 것은 집권 시 과학기술부 부활 공약 등 과학기술·이공계 우대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선 안정권에 여성 후보가 다수 포함된 점도 특징이다. 당 공심위는 비례대표 후보 명단 46명 중 50%인 23명을 여성 후보로 배정했다. 이중 당선 안정권인 22명 안에는 11명이 포함됐다. 민병주(비례대표 1번)·윤명희(3번)·강은희(5번)·신의진(7번)·이예리사(9번)·김현숙(13번) 후보 등이다.

탈북자·이주여성·장애인 등 소수자를 배려한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조명철 통일교육원장(4번)과 필리핀 귀화여성 이지스민(17번)씨·김정록(2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당이 정책기조 전환과 함께 약속한 소수자를 배려 정책으로 해석된다.

호남 뒤편 주영순(6번)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에서 주로 활동했다 정치에 입문했던 과거 호남 인사들과는 달리 지역 토박이 사업가라는 점을 평가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총 54석... 정당 득표율 따라 배분

비례대표 어떻게 뽑나

여야가 20일 4·11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하면서 그 선출 방식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19대 총선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18대 국회와 같은 54석이다. 지난 17대 때는 56석이었던 18대 때부터 2석이 줄었다. 비례대표 의석의 각 정당 배분은 정당득표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자 뿐만 아니라 지지정당에도 한 표씩을 행사하며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가 배분되는 것이다.

16대 총선까지만 해도 지역구 후보자 득표율 합산해 각 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했지만, 비례대표는 각 당의 지지율을 반영하는 것인 데 지역구 후보자 득표 합계로 선출하면 직접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01

년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17대 총선부터 정당명부 투표가 도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189조에는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 위해선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정당득표율은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의 총 득표수를 각 당의 득표수로 나눠 산출한다.

따라서 각 당은 정당 득표율에 54를 곱해 산출된 수(소수점 이하를 배제한 정수)를 우선적으로 배정받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정당 순으로 54석에 도달 때까지 1석씩 나눠 갖게 된다.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은 1인당 1500만원이며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를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면 당선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후보자 기탁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비례대표 6번 주영순 목포상의 회장

“지역발전 위해 일하라는 소명”

“아성이 강한 호남지역에서 여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것은 저 개인의 영광이기 보다는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주영순(65·사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당선안정권인 6번을 배정받은 데 대해 “민주당의 뒷받침이나 다름없는 목포에서 이번 비례대표 공천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소명으

로 알고 열심히 뛰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회장은 “목포는 여러 면에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고, 뒤쳐진 지역문제들도 많다”고 지적하고 “지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특히 “목포 등 산업기반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서남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고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

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6년간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쌓은 정·관계 인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뛰었지만 부족한 점도 많고 한계도 있었다”며 “이번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정가에서는 “목포 출신 국회의원이 두 명이 되면 각종 국책사업 등에 산을 확보하는데 더욱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광주 서구 갑 후보 공천, 해남·진도·완도 재심 인용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론 낸다

민주통합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광주 서구 갑 지역구의 후보 공천 문제와 해남·진도·완도 지역구의 재심 인용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서구 갑 공천 문제와 관련, 박해자 예비후보의 단독 공천과 송갑석 예비후보와의 경선 문제를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는 것은 물론 또 최고위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주간 전조등 켜기를 생활화 합시다!

“안전운전을 위한 팀이더, 매너”

차량 전조등(Headlight)이란?

- 전조등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다른 차나 사람에게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경고수단
- 최근 출시된 국산차나 외제차는 주간 주행등 미장착 차량의 경우 전조등은 하향 라이트를 말함(국내법규도 개정하면서 국산차도 주간주행등 설치 가능)
- ※주간주행등(DRL, Daytime Running Lamps)은 주간점등을 위해 기존 등화장치외에 별도의 전용 등화를 설치 하는 것으로, 시동과 동시에 점등이 되며 EU에서는 주간주행등 규정을 1992년부터 제정해 2011년부터 유럽전역으로 의무장착(트럭과 버스는 2012.8부터)

전조등 켜기 꺼리는 이유?

- 연료 및 배터리 소모, 전구수명 단축 등 인식 때문
- 초보운전(운전미숙)자로 오해를 받고, 또 상대방 운전자에게 미안해서 등

전조등 켜기 기대효과?

- 운전자: 운전자 주의력·집중력 향상, 졸음운전·중요선 침범 등 사고방지 효과 발생
- 노인, 어린이 등 보행자: 자동차 위치가 쉽게 인식되어 사고예방 효과
- ※[2009년 교통안전공단] 전남지역 법인택시 1680대 주간전조등 시해결과 28% 감소
- ※[2008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주간전조등 점등 운행시 2.621억 비용편익 발생

전조등 켜기 연료소모는?

- 시속 60km로 50km의 거리를 주행할 때 0.1ℓ의 기름 추가소모(약 200원)